



# 전주매일



## 전북형 먹거리 돌봄 확대

### 도,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건강한 식생활 지원 위해 올해 총 1464억원 규모... 근로자 대상 사업 도입 등 핵심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총 1464억원 규모의 전북형 먹거리 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영유아와 학생, 청년 근로자, 임산부 취약계층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먹거리 복지 정책을 확대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먹거리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근로자 대상 신규 사업 도입 미래세대 식생활 지원 강화, 임산부 건강 증진 등을 핵심으로 추진한다.

도는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89억원을 투입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기존 영유아·아동·임산부 포함 가구에 더해 34세 이하 청년 가구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연중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농촌지역의 식품 구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전북형 이동장터 시범사

업도 확대된다. 지난해 완주군 1개소에서 운영되던 이동장터를 올해는 완주군과 임실군 2개 지역으로 늘려 농촌 주민들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에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초등학교 늘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만 3,678명에서 올해 1만 5,133명으로 10.0% 증가했다. 학교 무상급식은 식품비 평균 단가를 75원 인상해 급식 품질 향상에 나선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 원의 아침밥' 사업도 확대된다. 지원 물량은 지난해 13만 8,000개에서 올해 16만 6,000개로 20.5% 늘어나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 예방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로자 지원사업의 신설이다.

전북자치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식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점심 식대의 20%를 연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튼튼한 점심밥' 사업을 새롭게 도

입했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은 운영 기간을 기존 58일에서 251일로 대폭 확대하고 사업비도 1억5,000만원에서 8억원으로 늘려 근로자 복지 향상에 힘을 쏟는다.

임산부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대상은 지난해 2,700명에서 올해 4,139명으로 53.3% 늘어났으며, 관련 예산도 19억 원으로 확대됐다.

도는 물론 지원에 그치지 않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사업도 병행한다.

총 5억2,000만원을 투입해 농식품 바우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과 생애주기별 체험 교육을 시행하며, 도민 스스로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나갈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먹거리 돌봄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영유아부터 고령층까지 모든 도민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전북형 먹거리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현장 점검 나선 도지사직 인수위 하계올림픽특위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하계올림픽특별위원회 최형원 위원장과 위원들이 23일 올림픽 주경기장 예정지인 전주월드컵경기장을 찾아 주요 시설 추진 상황과 국제 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면>

## 이 대통령 "서민 소득지원 방안 연구"

### "석유 최고가격도 낮춰야... 유류세 낮춰도 재정부담 없어 청년들 소외감 뼈아프게 받아들여... 정책 속도감있게 추진 환율 1500원대 증반은 펀더멘탈에 비해 과해... 시간 문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소득 지원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7회 국무회의 겸 제1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고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들만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양극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 운영 및 대응 현황과 관련한 구운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보고를 받은 뒤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 여부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는 물가 부담이 커서 계속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묻자 구 부총리는 "네"라며 "국제유가 동향과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해서 최고가격제를 어떻게 하는 게 좋

은지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등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그렇다면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게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조금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가격도 낮춰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최고가격제도 낮추고 필요하다면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정책을 지금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죠"라며 소득지원 정책을 위한 기금 마련도 물었다.

아울러 자산 양극화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우리 청년 세대는 현 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다. 역대급의 성과급이나 역대급인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만 세상이 돌아가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전반에 걸쳐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며 "할자리,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 영역에서 기회와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조속하게 확정하고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고환율 문제를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달러 강세와 엔화 약세, 코스피 상승 등을 고환율 원인으로 짚으며 "어쨌든 1500원 증반대는 너무 소위 펀더멘탈에 비해서 과하다는 것이죠"라고 물었다. 구 부총리가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시간이 문제겠군요"라고 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격한 시정의 변동성을 막도록 하겠다"고 했다.

/뉴스

## 도내 소비자심리지수 ↑... 경기 회복 기대감 확산

### 108.0으로 전월보다 2.0p 상승... 향후경기·취업기회·주택가격전망 긍정

전북지역 소비자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상승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지역 소비자심리지수는 6월 기준 108.0으로 전월(106.0)보다 2.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6.6으로 전월(106.1) 대비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쳐 전북의 상승폭이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소비자동향지수(CSI) 가운데 주요 지표 살펴보면 현재생활형편은 92에서 95로 3포인트 상승했으며, 가계수입전망도 99에서 100으로 소폭 개선됐다. 현재경기판단은 87에서 91로 4포인트 상승했고, 향후경기전망은 94에서 102

로 8포인트 오르며 경기 회복 기대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생활형편전망은 98에서 96으로 2포인트 하락해 향후 가계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은 다소 신중할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출전망은 109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여타 지수에서는 취업기회전망이 89에서 94로 5포인트 상승했으며, 금리수준전망은 113에서 127로 14포인트 급등했다. 가계저축전망은 97에서 98로 소폭 상승했고, 가계부채전망은 101로 전월과 변동이 없었다.

특히 주택가격전망은 114에서 122로 8포인트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수준전망 역시 123에서 125로 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계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경기 관련 전망 지표가 개선된 점에 주목하면서 생활형편전망 하락과 금리상승 우려가 여전히 소비 심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북 소비자심리지수는 지난해 11월 112.3까지 상승한 이후 올해 4월 100.5로 크게 하락했으나, 5월과 6월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상근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믿고 구매하는 초특가  
**장수군 직영 쇼핑몰**

장수몰 MALL  
JANGSU MALL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천혜자연 장수군의 맑은 물로 가꾸어진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